

가사 <관동별곡>의 종착지 ‘월송정 부근’과 결말부의 의의

성호경*

1. 서론
2. 가사 <관동별곡>의 주제와 구성
3. 작중 종착지 변증
4. 종착지 ‘월송정 부근’과 결말부의 의의
5. 결론

1. 서론

松江 鄭澈(1536~1593, 자는 季涵)의 가사 작품 <關東別曲>은 江原道 觀察使이던 작자가 1580년(선조 13) 음력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道內 巡歷을 기반으로 하여 지어진 명작으로서, 전 146행(293구)으로 이루어져 있다.¹⁾

- 1 江江湖호애 病병이 김퍼 竹箵林님의 누엇더니
- 2 關關東동 八팔百백리니에 方方面면을 맛디시니
- 3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

- 144 나도 즘을 씨여 바다홀 구버보니
- 145 기피를 모르거니 ㄹ인들 엇디 알리
- 146 明明月월이 千천山山萬萬落낙의 아니 비췌 더 업다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제67행 뒤의 3개 구로 이루어진 부분은 “玲녕龍龍 碧벽溪계와 數수聲성 啼테鳥도논/ 離니 別별을 怨원호는 듯”과 같이 2개 행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통례대로 “玲녕龍龍~ 啼테鳥도논”을 합쳐서 한 개 행으로 보기로 한다.

이 작품은 ‘작자가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 받아 原州에 부임하여, 內·外·海金剛과 關東八景을 두루 유람하는 가운데 뛰어난 경치와 그에 따른 감흥을 표현한 작품²⁾’ 등으로 많이 알려져 오고 있다. 말하자면 紀行歌辭로서 뚜렷한 주제와 구성의 중심축이 없는 작품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神仙모티프도 작자의 낭만적 상상력이 발현된 것으로서 작품 구성에서 부수적인 요소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필자는 작품을 분석적으로 살펴서, 작자가 자신을 仙人으로 여기는 自意識(신선의식)의 실현이 주제의 핵심이며 구성과 표현도 이를 구현함에 초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³⁾ 그 구성은 신선의식을 도출하여 실현하는 과정과 결과의 구현을 중심축으로 하는데, 그 신선의식 실현의 결과가 결말부에서 절묘하게 구상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과 그 형상화는 작품 속의 주요 배경과 그 특성의 영향을 다소간 받아서 이루어졌을 수 있고, 특히 그 신선의식 실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결말부의 사상과 형상화는 그것이 이루어진 마지막 공간 곧 작품 속 여행의 終着地가 지닌 특성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종착지가 어디이며 그 특성이 어떠한가를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 작중 종착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12 天巖根근을 못내 보와 望望洋양亭亭의 울은말이
- 113 바다 밧근 하늘이니 하늘 밧근 므서신고
- 114 궂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 115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 116 銀은山산을 것거내어 六육습합의 느리는 듯
- 117 五오月월 長당天巖의 白뽁雪설은 므스 일고
- 118 저근덧 밤이 드러 風풍浪浪이 定딩흔거늘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47면.

3) 성호경, 「〈關東別曲〉의 형상화와 鄭澈의 신선의식」, 『고전문학연구』 37(한국고전문학회, 2010. 6), 71~106면.

- 119 扶부桑상 咫지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
- 120 瑞서光광千천丈丈당이 되는 듯 숨는고야
- 121 珠珠簾렴을 고터 짓고 玉옥階계를 다시 쓸며
- 122 啓계明明星성 듯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 123 白백蓮년花화 흔 가지를 뒤라셔 보내신고
- 124 일이 요흔 世세계계 늬대되 다 뵈고져
- 125 流流霞하酒주 ㅁ득 부어 들드려 무론 말이
- 126 “英英雄웅은 어디 가며 四스仙선은 귀 뒤러니”
- 127 아미나 맛나보아 넷 기별 못자 하니
- 128 仙선山산 東동海히에 갈 길히 머도 멀샤

- 129 松송根근을 베어 누어 ㅍ뜸을 얼푯 드니
- 130 꿈애 흔 사름이 날드려 닐은 말이
- 131 “그더를 내 모르랴 上상界계에 眞진仙선이러
- 132 黃황庭딩經경 一일字즈를 엇디 그릇 닐거두고
- 133 人人間간의 내려와셔 우리를 쏘오는다
- 134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흔 잔 머겨 보오”
- 135 北북斗두星성 기우려 滄창海히水슈 부어 내어
- 136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 137 和화風풍이 찻슴찻슴하야 兩兩腋익을 추혀드니
- 138 九구萬만리리 長당空공애 저기면 놀리로다
- 139 “이 술 가져다가 四스海히에 고로 눈화
- 140 億億萬만蒼蒼生성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의
- 141 그제야 고터 맛나 또 흔 잔 ㅎ쟈고야”
- 142 말 디자 鶴학을 타고 九구空공의 올라가니
- 143 空空中중 玉옥簾쇼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 144 나도 줌을 찌어 바다홀 구버보니
- 145 기핼를 모르거니 ㅁ인들 엇디 알리
- 146 明明月월이 千천山산萬만落낙의 아니 비훤 더 업다

이에서 제112~128행 부분은 첫머리인 제112행에 ‘望洋亭’에 올랐다는 말이 나온 뒤로 작자가 그곳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체험한 바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결말부인 제129~146행에서는 다른 장소가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고, 그 시간적 배경도 앞과 마찬가지로 ‘달밤’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그 종착지가 망양정이라고 여겨 왔다.⁴⁾

그러나 필자는 작중 종착지가 ‘越松亭 부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바, 이 글에서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중 종착지가 월송정 부근으로 설정된 것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그 앞에서 전개된 신선의식의 실현 과정을 마무리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결말부가 지니는 의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찰들은 이 작품의 형상화가 신선의식 실현을 위주로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바가 많으므로, 필요에 따라 필자가 그 주제와 구성 등에 관해 살핀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한 뒤에, 이와 관련시키면서 논의들을 펼치고자 한다.

2. 가사 <관동별곡>의 주제와 구성

1) <관동별곡>의 창작배경과 정철의 신선의식

정철은 1562년(명종 17; 27세) 3월에 文科 別試에 장원급제하고 벼슬길에 나아가 成均館 典籍이 되었다. 이후 여러 관직들을 거쳐서, 1578년(선조 11; 43세) 5월에 通政大夫 承政院 同副承旨가 되었고, 11월에 司諫院 大司諫에 제수되었다가 탄핵을 입고 갈리자, 벼슬을 그만두었다. 이후 1년여 동안 벼슬길에서 떨어져 있었다.

1580(선조 13; 45세) 정월에 강원도 관찰사(兵馬節度使와 水軍節度使를

4) 金思燁, 『鄭松江研究』(계몽사, 1950), 186면; 김병국의 「가면 혹은 진실: <관동별곡> 평설」(『국어교육』 1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2, 재수록: 김병국,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36면 등.

겸함)에 제수되자, 서울로 가서 사은숙배한 뒤 관찰사 관아(監營)가 있는 원주에 부임하였다. 2월부터 1년간 재임하면서(이듬해 2월에 兵曹參知가 되어 조정으로 돌아감) 도내의 民政·財政·刑政과 軍政을 통할하였으며, 봄·가을에 한 차례씩 도내 각지를 순력(순회 감시)하였다.

정철이 관찰사였을 때 강원도에는 大都護府 1(江陵), 牧 1(原州), 都護府 5(淮陽, 襄陽, 春川, 三陟, 鐵原), 郡 7(平海, 通川, 旌善, 高城, 杆城, 寧越, 平昌), 縣 12(縣令 관할: 金城, 蔚珍, 歙谷; 縣監 관할: 伊川, 平康, 金化, 狼川, 洪川, 楊口, 麟蹄, 橫城, 安峽)의 26개 지역이 소속되어 있었다.

강원도의 대부분은 산악지대인데, 대표적인 명산인 금강산 일대는 서부의 內金剛과 동부의 外金剛으로 구분되었다(17세기 말부터는 동해안쪽도 ‘海金剛’이라 부르게 되었다). 수많은 절경들로 이루어져서 최고의 명승지라는 찬사를 받아 오고 있다.

그리고 동해안쪽 嶺東지방은 ‘關東’이라고도 하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그 완상에 적합한 건축물이 많다. 그 가운데서 손꼽히는 명승지들인 ‘관동 팔경’(통천의 叢石亭, 고성(高城)의 三日浦, 간성의 淸澗亭, 양양의 洛山寺, 강릉의 鏡浦臺, 삼척의 竹西樓, 평해의 망양정과 월송정 또는 흡곡의 侍中臺) 등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의 探勝地가 되어 오고 있다. 또한 영동지방은 6세기 말부터 신라의 花郎과 인연을 맺고, 명승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무리들의 주요한 遊娛·修鍊處가 되었다.

신라 때의 화랑들 가운데 영동지방 유오로써 후대에 널리 알려진 네 사람을 ‘新羅四仙’이라 하고, 그 이름들로 永郎·述郎·南郎南石 또는 南石行·安詳을 든다(이들의 신원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음). 정철이 참고할 수 있었을 16세기 초엽까지의 기록들⁵⁾에 실린 이들의 행적에 관한 전승에 의하면, 이들은 동해안에서 四仙峰이 있는 총석정(통천), 삼일포·丹穴(고성), 永郎湖(간성), 寒松亭 부근·경포대(강릉), 월송정(평해) 부근 등에서 놀았다고 한다.⁶⁾ 그들의 마지막 행적에 관한 전승은 찾기 어려운데, 중국의 설화에

5) 安軸(1282~1348)의 『關東瓦注』(1330년; 『謹齋集』 권1); 李穀(1298~1351)의 『東遊記』(1349년; 『稼亭集』 권5); 『新增東國輿地勝覽』(盧思愼·姜希孟·徐居正·成任·梁誠之 등이 1481년에 편찬한 『東國輿地勝覽』을 李荇·洪彦弼 등이 1530년에 增補함) 등.

6) 이 밖에, 금강산의 永郎峰·永郎岫, 지리산의 영랑재, 서해의 白翎島·阿郎浦(황해도 長湍

신선이 바다 가운데 산(蓬萊山·方丈山·瀛洲山) 속에 산다고 한 것에 따라서 신선이 되어 동해 가운데 산(‘三神山’ 등)으로 갔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다.⁷⁾

정철은 신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의 신선관이 뚜렷이 나타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의 우리말 시가와 한시 작품들에서는 신선에 관련된 어휘와 표현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에게 신선이란 일차적으로 도교의 신선사상처럼 천상의 신선들이거나 인간세계를 떠나 산속에서 辟穀하며 도를 닦아 不老長生한다는 하계의 仙人들을 이르는 것이다.⁸⁾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의 李白(701~762, 자는 太白)·蘇軾(1037~1101, 호는 東坡)과 우리나라의 신라사신·金成遠(1525~1597, 호는 棲霞) 등 실재한 인물들도 ‘仙’·‘仙人’으로 칭했는데, 이는 그가 인간세계에 살면서도 세상사를 잊은 사람(物外閑人, 江湖散人)이나 자연과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도 선인으로 여겼음을 알려준다.

젊어서부터 풍류와 酒色을 즐긴 정철은 중년 이후에 자신을 선인이거나 또는 前生에 신선이었던 사람으로 여기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다른 사람들도 그를 신선처럼 보기도 했다). 그러한 자의식은 그가 지닌 풍채와 기상 등에서 연유한 바도 있겠지만, 그가 선인으로 특히 推重한 사람들인 이백과 김성원 등의 영향도 받았을 터이다.

이백은 자유로운 정신과 호탕한 기상이 넘치는 시를 많이 지었으며, ‘詩仙’으로 일컬어진다. 또 仙風道骨 같은 모습과 시로 인해 ‘天上謫仙人’이란 평을 들었고, 술을 즐겨서 ‘酒中八仙’의 한 사람으로 불렸으며 스스로도

郡) 등에서도 놀았다고 한다.

7) 李穡(1328~1396)의 시 <有感>(『牧隱詩藁』 권22)에서는 “... 恨不扶輿游海上 四仙千里遠相尋”이라 하여 사선이 바다 멀리 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李陸(1438~1498)의 <次江陵東軒韻>(『靑坡集』 권1)에서는 “... 蓬萊方丈知何處 丞招悵無因訪四仙”이라 하여 三神山에 사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李義健(1533~1621)은 <鏡浦臺>(『峒隱先生稿』 권1)에서 “四仙遺跡海中山 羽蓋芝輪去不還 湖上至今明月夜 玉簫聲在白雲間.”이라 하였다.

8) 도교에서는 上天의 紫微垣(北極星을 포함하는 별자리)에 초월자(玉皇上帝 등)가 있고 여러 신선들이 그를 보좌하는데, 지상세계 사람들의 운명은 이 신선들에 의해 좌우된다. 사람들 중에서 초월자에게 선택된 자만이 仙人이 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자만이 昇天하여 신선들 속에 끼일 수 있다. 이들은 인간세계를 떠나 산속에 숨어 살면서 여러 가지 수련을 쌓고 丹藥을 먹으면 날개가 생겨 하늘을 날게 되고 상천에 올라가서 살게 된다고 한다. 『네이버백과사전』의 「선인」(<http://100.naver.com/100.nhn?docid=90988>) 등 참조.

‘酒中仙’이라 칭했다. 정철은 술과 풍류를 즐기며 詩作 솜씨가 뛰어난 점 등에서 이백과 얼마간 공통된 면들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을 이백과 마찬가지로 지라고 한 표현들도 남겼다. 그는 은근히 자신을 선인으로 여기고, ‘謫仙’·‘酒中仙’·‘詩仙’이었던 이백과 마찬가지로의 사람 또는 그의 後身으로 자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⁹⁾

2) <관동별곡>의 주제와 구성

<관동별곡>도 대다수 가사 작품들처럼 그 구성이 일정한 주제에 의한 통일성을 뚜렷이 갖추지 않은 채 여러 삽화들이 집적(부가)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로 보아, 이 작품은 전편을 통여하는 주제와 구성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작품 속의 여정은, 작자가 강원도 관찰사로서 순력한 실제의 여정 그대로가 아니라, 작자의 주관적인 관심이나 의식에 의해 취사선택된 것이다.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부임과정과 영서지방에 관한 부분을 전반부, 영동지방에 관한 부분을 후반부라 하고, 시상 전개를 고려하여 그 지역들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전반부 (1) 부임과정(竹林에서 서울로 갔다가 원주까지): 7개 행(제1~7행)
 (2) 원주에서 금강산 어귀까지(昭陽江·철원·회양을 거침): 8개 행(제8~15행)
 (3) 금강산(내·외금강): 53개 행(제16~68행)¹⁰⁾
- 후반부 (1) 동해안쪽으로 나와서 삼척까지(통천·고성·간성·양양·강릉을 거침): 39개 행(제69~107행)
 (2) 삼척의 뒤(지역 不明): 4개 행(제108~111행)¹¹⁾

9) 이상은 성호경, 앞의 글, 74~84면 등의 내용을 추려서 요약한 것임.
 10) 제66~68행 “山山中들을 락양 보랴 東동海히로 가자스라/ 藍남輿여 緩완步보호야 山山瑛瑛樓누의 올라호니/ 玲瑩瓏능 碧벽溪계와 數수聲성 啼啼鳥도는 離離別별을 怨원호는 듯”은 그 앞의 佛頂臺·十二瀑布와 함께 외금강에 속하는 곳에 대한 기술이며 금강산을 떠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전반부의 끝부분으로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11) 삼척에 들른 뒤의 “王왕程程이 有有限한 호고 風풍景경이 못 슬미니/ …/ 仙仙人人을 좃즈

(3) 평해: 35개 행(① 망양정 제112~128행, ② 꿈 제129~146행)

당시 각도의 관찰사는 봄·가을에 한 차례씩 도내 각지를 순회 감시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러므로 작자가 강원도 관찰사로서 1580년 음력 3월부터 5월까지 순력한 지역으로는 작품에 나타난 지역들 외에 횡성·홍천·춘천·낭천·김화·안협·이천·평강·금성·양구·인제·흡곡·울진·정선·영월·평창도 있었을 터인데, 이 여러 지역들은 작품에서 누락되거나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금강산(내금강, 외금강)은 매우 자세히 기술되고 동해안의 일부 지역(특히 평해군)도 중시된다. 곧 작품 속의 여정 구성은 실제의 여정 그대로가 아니라 작자의 관심이나 의식에 의해 취사선택된 것이다.

둘째, 특정 지역들에 대한 기술이 비정상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작품의 전 146개 행에서 부임과정과 영서지방에 68개 행, 영동지방에 78개 행이 배분되어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금강산(내·외금강)이 압도적인 비중을 지니며(53/68행: 77.9%), 후반부의 여러 지역들 가운데는 평해(망양정, 꿈)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35/78행: 44.3%). 그러므로 전반부의 구성에서는 금강산이 압도적으로 강조된 중요사항이고, 후반부에서는 평해지역이 가장 강조된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작품에 나타난 여정이 실제의 여정 그대로가 아니라 작자의 관심이나 의식에 의해 취사선택된 것이고, 특정 지역들이 중요사항으로 강조되어서 비정상하게 많은 분량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은, 이 작품이 전편의 형상화를 통어하는 주제와 구성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작품의 주제와 구성의 중심축을 이루는 작자의 관심이나 의식은 후반부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앞부분에서 작자는 스스로를 ‘醉仙’이라 하고(제71행), 동해안의 여러 지역들에서 신라사선을 찾아서 그 행적을 따랐다(제78~82행 등). 삼척에

려 丹壇穴혈의 머므살가”(제108~111행)의 시상은 삼척 부분(제105~107행)에서의 임금에 대한 마음 표현과는 달리, 제한된 공적 여정 속에서 사적 관심사 추구가 지니는 한계에 따른 애수와 차후의 행로에 대한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그 앞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의 뜻에 대하여는 각주 12)를 볼 것.

들른 뒤에는 신선 찾기의 다음 행로에 대하여 갈등을 보였고(제110·111행), 망양정에서는 신선 찾기-만나기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었다(제125~128행).¹²⁾ 그 갈등·회의는 작품의 최종 완성을 기하는 결말부에서 해결되어, 작자는 드디어 그의 꿈속에서 사선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사선 찾기의 목적을 달성함), 그에게서 자신이 본디 ‘上界의 眞仙이다가 黃庭經 한 글자를 잘못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왔다’는 말(‘넋 기별’)을 들음으로써(제130~133행) ‘謫仙’으로서의 自我正體性을 확인하고는, 잠을 깨어서 그 확인(깨달음) 이후에 굽어봄(俯瞰)을 통해 자신에게 펼쳐진 무궁하고 밝은 세계 곧 신선의 경지를 표현하였다(제144~146행). 이러한 구성과 표현들은 작자가 자신이 선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의 동해안쪽 여행이 그 선인이 신선이 된 사선을 만나서 자아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행방을 찾아 옛 행적을 따르는 것인 양 여기고 있었으며, 마침내 자신이 ‘본디 上界의 眞仙’이었던 ‘謫仙’임을 확인하고는 본래의 정체성 회복을 지향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러기에 후반부에 나타난 여정은 실제의 여정과는 달리, 사선의 행적과

12) ‘仙槎’는 올진의 古號이기도 한데(『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蔚珍縣, ‘郡名’, ‘민간에 전하기를 博望侯 張騫(?~BC 114; 중국 漢 武帝 때 使臣으로서 西域으로의 교통로 개통에 크게 공헌했음)이 뗏목을 타고 이곳에 왔다고 한 까닭으로 이른 것’이라고 한다(“諺傳博望侯張騫乘槎來此故云耳”; 『關東誌』, 『蔚珍』, ‘郡名’, 영인본: 韓國學文獻研究所 편, 『江原道邑誌 ①』, 아세아문화사, 1986, 364면).

『史記』 권123, 『大宛列傳』에서의 “漢使窮河源”과 “太史公曰 … 今自張騫使大夏之後也 窮河源”은 장건의 使行이 黃河 발원지까지 이르렀다고 한 것인데, 후세에는 이를 토대로 하여 장건이 河源을 찾아서 뗏목을 타고 天河(銀河水)에 이르러 牽牛와 織女를 만났다고 하는 전설이 생겨났다.

이로써 보면, “仙槎사물 띄워내어 斗牛牛우로 向향할사/ 仙선人인을 좃조러 丹단穴혈의 머므살가”(제110·111행)는 천상의 신선이 된 장건을 만나기 위해 仙槎를 타고 北斗星과 牽牛星 사이에 흐르는 은하수로 항할 것인지 또는 계속 신라사선을 만나고자 하여 그 앞 여정에서 빠뜨린 사선 유적지 丹穴(고성군)로 가서 머물 것인지에 대해 갈등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流뉴霞하酒주 ㄴ득 부어 들드려 무론 말이/ ‘英雄雄웅은 어디 가며 四스仙선은 귀 뉘리니/ 아리나 만나보아 넋 기별 못자 하니/ 仙선山산 東동海회에 갈 길히 머도 멀샤”(제125~128행)에서는 ‘英雄(제110행의 내용으로 보아 ‘장건’을 이룬 것일 가능성이 높음)이나 사선을 찾아 ‘옛 기별’을 묻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 것으로서, 신선 찾기-만나기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제108~111행 부분과 제112~128행 부분은 작자의 신선 찾기에서의 갈등과 회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신선 찾기-만나기에서의 위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장소가 없는 지역들은 누락시키거나(흡곡, 그리고 평해에서 원주로 가는 귀환로에 위치한 지역들), 또는 짝막히 말하거나(삼척) 암시적으로 나타냄에 그치고 있다(울진).

그리고 후반부의 기술내용 대부분이 관찰사의 공적 임무와 무관한 사적인 관심사의 추구와 그 감회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사선의 행적과 관련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도 ‘신선(사선) 찾기-만나기’ 등 신선의식 실현 위주의 창작의식에 따른 취사선택의 결과일 것이다. 이렇듯이 후반부에서는 작자의 신선의식 실현이 구성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전반부의 구성에서도 그 신선의식은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전반부의 기술내용은 금강산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작자는 그 일대의 勝景들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선의식을 은밀하게 도출하여 浮上시켰다. 자신을 회양에서는 중국 漢 武帝 때 회양태수로서 善政을 편 汲黯(汲長孺)에 견주었다가(제15행), 금강산에 들어서서는 林逋(西湖處士)에 비유하였는데(제23~26행), 입산을 계기로 하여 牧民官에서 隱逸高士(작자의 신선관에 의하면 선인으로 볼 수 있음)로의 변신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의 승경을 중국의 廬山과 비교하면서는 소식(蘇仙)의 표현인 “不識廬山眞面目”을 정반대의 뜻으로 바꾸어서 썼으며(제29행), 그 끝부분에서는 ‘이적선’(이백)을 직접 지칭하여 그의 판단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었다(제64·65행).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자는 자신을 은일고사 임포에 비견함은 물론이고 은근히 소식·이백과 같은 선인으로 널리 간주되는 인물들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고자 했고, 이로써 어렵פות하게나마 자신이 그들(특히 이적선)과 마찬가지로 선인이라는 자의식을 도출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반부의 끝부분은 그 뒤의 영동지방 여정이 ‘이적선’과 마찬가지로 ‘醉仙’으로서 ‘신선(사선) 찾기-만나기’ 등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이끌어내는 구실도 한다. 그러기에 작자는 자신의 신선의식을 도출하여 부상시킨 뒤에는 금강산 일대에서 사선과 무관한 나머지 장소들을 건너뛰고 곧바로 후반부의 첫머리에서부터 그 신선의식의 실현을 위한 활동들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보아, 그 구성과 표현에서는 금강산의 승경에 대한 기술이 주된

초점이면서도, 그 속에서 작자의 신선의식을 도출하여 부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동별곡>의 주제는 '작자의 신선의식을 도출하여 실현함(신선 찾기·만나기와 적선으로서의 자아정체성 확인)'이라고 할 것이며, 전체 구성도 그러한 주제의 구현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승경들에 대한 기술(특히 묘사)도 중시되었는데, 특히 금강산과 망양정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그 밖에도, 목민관으로서의 자세·의식, 그리고 임금에 대한 마음(감사, 그리움, 충성심 등) 등이 간간히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관동별곡>은 독자성이 강한 부분(삽화)들의 집적(부가)이라는 면을 다소간 지니면서도, 작자의 신선의식을 도출하여 실현함이라는 주제의 구현을 구성의 중심축으로 하고, 금강산과 망양정 등의 승경들에 대한 기술을 부차적인 구성요소로 하면서, 목민관으로서의 자세·의식과 임금에 대한 마음 등에 관한 삽화들을 주변적인 모티프로서 간간히 끼워 넣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성을 신선의식 위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분단될 수 있을 것이다.

| 분단 | | 여정 및 장면 | | 주요 성격 |
|--------|----------|---------------------|----------------------|-----------------------------------|
| 전반부 | I. 도입부 | 부임과정 | 제1~7행 (7개 행) | 신선의식의 사전 배경 |
| | | 영서지방 순력 | 제8~15행 (8개 행) | |
| | II. 발단부 | 금강산 탐승 | 제16~68행 (53개 행) | 금강산의 승경 기술과 신선의식 도출 |
| | III. 발전부 | 영동지방 순력 | 제69~107행 (39개 행) | 신선의식 실현으로서의 신라사선 찾기와 동해안의 승경 기술 |
| 후반부 | IV. 위기부 | 삼척의 뒤 | 제108~111행 (4개 행) | 신선 찾기의 행로에 대한 갈등 |
| | | 망양정 | 제112~128행 (17개 행) | 망양정에서의 경치 기술과 신선 찾기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회의 |
| | V. 결말부 | 꿈 | 제129~143행 (15개 행) | 사선과의 만남과 謫仙으로서의 자아정체성 확인 |
| 꿈을 깬 뒤 | | 제144~146행 (3개 행) | 깨달음 이후의 신선의 경지 | |

이는 시상의 변화가 거의 없는 단조로운 구성이 아니라, 서사문학의 플롯처럼 전환을 보이는 위기단계가 있음으로써 그 굴곡 있는 시상 전개를 통해 動性을 보이며 흥미를 한층 불리일으키는 예술적·정서적 효과를 기한 구성이다.¹³⁾

3. 작중 종착지 변증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관동별곡>의 작중 종착지를 ‘망양정’으로 보아 왔다. 망양정에서의 조망과 풍류 이후에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뚜렷이 나타내는 말이 없고, 결말부의 시간적 배경이 앞과 마찬가지로 ‘달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에, 그 종착지가 ‘越松亭¹⁴⁾ 부근’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작품에서의 “松송根근을 베어 누어”(제129행)는 땅위에 노출된 솔뿌리를 베개 삼아 베고 누웠다는 말인데, 이는 작자의 머리가 소나무(松)를 넘어감(越)으로써 ‘越松’을 나타내게 되어, 월송정 부근 숲에서 누워 잤다는 것을 묘미 있게 표현한 바일 것이다.

월송정 부근에 대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푸른 소나무가 만 그루이고 흰 모래는 눈 같다. 소나무 사이에는 땅강아지와 개미가 다니지 않고 새들도 깃들지 않는다. 민간에 전하기를, 신라 선인 述郎 등이 여기서 놀고 쉬었다고 한다.”¹⁵⁾고 하였다. 그리고 1593년부터 3년간 평해에서 귀양

13) 이상은 성호경, 앞의 글, 84~94면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며 요약한 것임,

14) ‘月松亭’이라고도 하며, 평해군(현재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동쪽 7리(月松里)에 있다. 고려 충숙왕 13년(1326)에 강원도 按廉使 朴淑이 창건하였고, 조선 연산군 때 관찰사 朴元宗이 重建했다. 이후 퇴락하여 1933년에 중건했던 것을 일제 말기에 일본군이 철거해버렸다. 1969년에 옛 모습과 다르게 신축했던 것을 해체하고, 1980년에 현재의 정자로 복원하였다. ‘디지털울진문화대전’의 ‘http://uljin.grandculture.net/gc2/common/sub.jsp?pact=view_id&h_id=GC01800429’ 등 참조.

15) “蒼松萬株 白沙如雪 松間螻蛄不行 禽鳥不棲 諺傳 新羅仙人述郎等 遊憩于此.”(권45, 평해군, 「樓亭」, ‘越松亭’).

살이 한 李山海(1539~1609)는 『越松亭記』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월송정은 군청의 동쪽 6, 7리에 있다. 그 이름에 대해, 혹은 ‘나는 신선이 솔숲을 넘다’라는 뜻을 취한 것이라 하고, 혹은 ‘月’을 ‘越’로 한 것은 같은 소리로 인한 잘못이라고 하는데, 두 설의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내가 ‘月’을 버리고 ‘越’을 취한 것은 정자의 편역을 따른 것이다.

푸른 덮개 흰 비늘들이 우뚝우뚝 높이 솟아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몇 만 그루인지 모르겠다. 그 뻘뻘함이 빗과 같고 그 끈기가 먹줄과 같아, 우러러도 하늘의 해가 보이지 않고, 다만 보이느니 은모래 옥가루가 나무뿌리 아래 평평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까마귀나 솔개가 깃들지 못하고 개미나 땅강아지가 다니지 못하며, 온갖 풀들이 그 사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 때로 흑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기고 萬籟가 모두 고요할 때면 笙簧과 학의 소리 같은 것이 은은히 공중으로부터 내려오기도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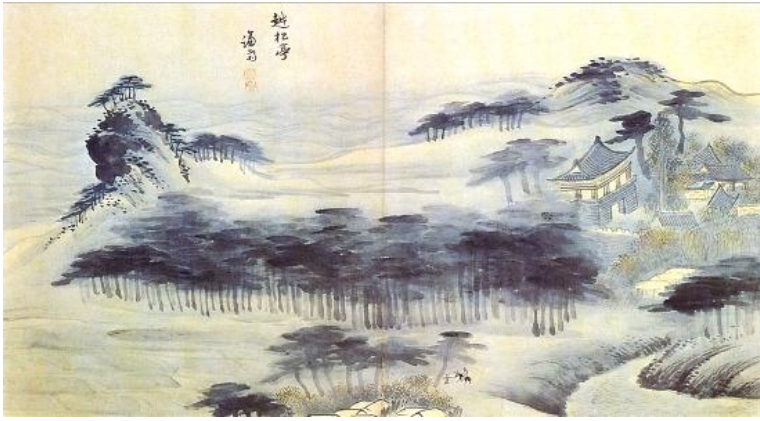
내가 일찍이 花塢村(솔숲 서쪽 마을)에 寓居하면서 기이하고 뛰어난 경관을 실컷 차지하였다. 따스한 봄날 새들이 서로 지저귀면 두건을 쓰고 지팡이를 끌며 꽃 붉고 소나무 푸른 사이를 배회하였고, 불덩이 같은 해가 하늘에 떠있어서 땀이 줄줄 흐르게 되면 소나무에 기대어 한가롭게 졸면서 정신이 蔚陵(鬱陵島)의 밖에서 노닐었다.¹⁶⁾

이처럼 월송정 부근은 음력 5월의 여름더위를 피해 시원한 솔숲에서 개미·땅강아지 등 벌레들의 침해를 받지 않고(낮에는 햇볕도 피하며) 소나무에 기대거나 솔뿌리를 베고 누워서 즐기거나 잠자기에 적합한 곳이었다.¹⁷⁾

다음은 월송정과 그 부근을 그린 謙齋 鄭澈(1676~1759)의 眞景山水畫다.

16) “越松亭 在郡治之東六七里 其名也或以爲取飛仙越松之義 或以爲以月爲越 乃同聲之誤 二說未知孰是 而余之捨月取越 從浦樓之扁額也 翠蓋白甲 亭亭高聳 環擁海岸者 不知其幾萬株也 其密如櫛 其直如繩 仰之不見天日 而但見銀沙玉屑 平鋪於樹根之下 烏鳶不得棲 螻蟻不得行 衆草凡卉 不得托根於其間 (...) 時或夜深人絕 萬籟俱寂 則依依如笙鶴之聲 自空而下 (...) 余嘗僑寓花塢 飽占奇勝 春日暄暖 禽鳥交鳴 則岸巾曳杖 徘徊於花紅松碧之間 火日當空 流汗如瀉 則倚松閑睡 神遊於蔚陵之外.”(李山海, 『鵝溪遺稿』 권3).

17) 월송정 부근에서 지어진 이산해의 한시 <蔚陵島>(『아계유고』 권1, 『箕城錄』)의 제3수에서도 “倦倚松根午夢間 冷風吹上鶴天寒 ...”이라고 하였다.



1738년, 紙本淡彩, 32.3×57.7cm, 澗松美術館 소장

그리고 다음은 조망점을 약간 달리한 烟客 許倣(1708~1768)의 그림이다.



紙本淡彩, 鮮文大學校博物館 소장

이 같은 월송정 부근에 비해,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였을 때의 망양정 일대는 ‘松根을 베고 누워 잠듦’이 어려웠을 때 우 험준한 지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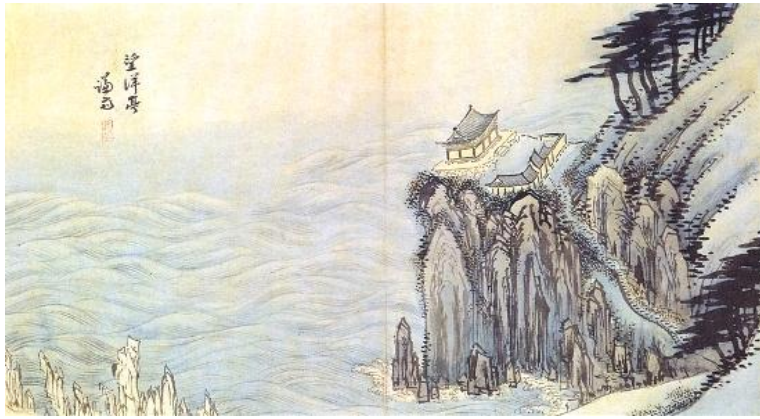
20세기 초에 신작로를 낼 때 바닷가 벼랑의 대부분이 잘려나갔기에 이제는 옛 모습을 찾기 어려운 그 일대에 대하여, 蔡壽(1449~1515)의 望洋亭記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 정자는 여덟 기둥으로 들렀는데, 기와도 옛것을 쓰고 채목도 새로 모으지 않았다. 웅장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경치의 기이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정자의 조금 북쪽에 여덟 칸을 둘러서 지었으니 이름을 ‘迎暉院’이라 한다.

벼랑을 따라 내려가면 또 돌 하나가 우뚝 솟아있고 그 위에 7, 8인이 앉을 만하며 그 아래는 땅이 없는데, ‘臨瀛臺’라 한다. 북쪽으로 백 보 밖을 바라보면 험한 사다리가 구름을 의지하여 있는데, 그 위로 사람이 가면 반은 하늘에 있는 것 같으니 이름을 ‘鳥道棧’이라 한다.¹⁸⁾

다음은 당시의 망양정¹⁹⁾ 일대를 그린 정선의 진경산수화다.



1738년, 紙本淡彩, 32.3×57.7cm, 潤松美術館 소장

이처럼 망양정 일대는 깎아지른 벼랑으로 이루어져서,²⁰⁾ 사람이 슬뿌리

18) “是亭線以八柱 瓦用其舊 材不新聚 雖不壯不麗 而景物之奇 莫可端倪 亭之小北 環構八間 名迎暉院 緣崖而下 又有一石突起 上可坐七八人 下臨無地 名臨瀛臺 北望百步外 有險棧欲雲 人行如在半天 名鳥道棧.”(『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평해군, 「누정, 「望洋亭」).

19)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였을 때는 평해군의 북쪽 40리 箕城面 望洋里 懸鍾山 기슭에 위치하였다. 고려 때에는 망양리 해안에 세워져 있었으나, 낡아서 허물어진 것을 조선 성종 2년(1471)에 평해군수 蔡申保가 현종산 기슭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 후 1517년에 폭풍우로 넘어지자 다음해에重修했고, 1860년(철종 11)에 현 위치인 울진현 近南面 山浦里로 移建하였다. 이후 1959년에 重建했던 것을 2005년에 해체하고 새로 건립하였다. ‘디지털울진문화대전’의 http://uljin.grandculture.net/gc2/common/sub.jsp?search=&menu_idx=11&find=%EB%A7%9D%EC%96%91%EC%A0%95&pact=view&set_id=11476&table_name=GC_O_TBL&pos=0&totalCnt=1 등 참조.

20) 이러한 망양정 일대의 험한 지형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시로 묘사하였다. ‘조도잔’에 대하여, 徐居正(1420~1488)은 “蒼崖萬仞臨海堤 鳥飛不度青天低 縈紆一棧細如縷 丹梯十二勤攀躋 行人失脚馬頻僵 危於巖頭高太行.”이라고 묘사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5, 평해군, 「題詠, 「鳥道棧」). 또 ‘임의대’에 대해, 成倪(1439~1504)은 “望洋亭前千尺臺 龍挈

를 베고 누워서 잠자기에는 매우 위태로운(밤 시간에는 더욱 위험한) 지형이었다. 게다가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산비탈 외에는 일대에 사람이 베고 누울 수 있을 만큼 뿌리를 드러낸 소나무가 없는 등, 월송정과는 달리 소나무와 별다른 인연을 가지지 않은 곳이었다고 할 수 있기도 하다.²¹⁾

둘째, 월송정 부근이야말로 신라사선의 동해안쪽 행적이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며, 작품의 결말부에서 작자가 신선이 된 사선의 한 사람을 만나고 그의 말(‘넋告别’)을 통해 자아정체성(‘본디 上界의 眞仙’)이었다가 작은 잘못으로 인간에 내려온 ‘謫仙’임을 확인하게 되는 대목의 바로 뒤에 나오는 “말 디자 鶴학을 타고 九구공공의 올라가니/ 空空中뚱 玉옥簫소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제142·143행)는 다름 아닌 월송정 부근의 전승 및 특성과 관련을 가진 것이다.

그 부근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신라 仙人 述郎 등이 여기서 놀고 쉬었다’는 민간전승이 있다고 했으며, 『關東誌』(1830년경 편찬)의 平海郡誌에서는 “술숲과 모래의 경계에 돌 봉우리가 험하게 솟았는데, 숨은 용이 뿔을 드러낸 것처럼 기울어 서 있다. 민간에 전하기를, (...) 신라 때 永郎·南郎·述郎·安郎의 사선이 여기서 놀고 쉬었다고도 하고, 혹은 사선이 처음에는 絶勝인 줄 모르고 잠결에 넘어 지나갔다고도 한다.”²²⁾고 하였다.

이러한 전승들로 인하여, 월송정과 그 부근에서 지어진 한시 작품들에서는 신라사선 등 신선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부각되었다.

安軸의 <次越松亭詩韻>(『謹齋集』 권1)에서는 “일도 갔고 사람도 옛사람 아니며 물도 절로 동으로 흘렀지만, 천금 같은 남긴 종자는 정자 소나무에 있네(事去人非水自東 千金遺種在亭松). (...) 어느 仙郎이 있어 함께 학을 삶을까? 나무꾼에게 용 잡는 것 배우게 하지 마라(有底仙郎同煮鶴 莫令樵父

虎攫青崖巖 槎牙亂石插海濼 波湧萬丈飛雪堆.”라고 하였다(『虛白堂詩集』 권9, <平海八詠>).

21) 그림 속에서 벼랑 위를 두른 나무는 香柏(側柏나무; 喬木이지만 흔히 灌木처럼 자라고, 절벽이나 석회암지대에 잘 자람)으로 추정된다. 채수의 앞의 글 뒷부분에서 “香柏蔓生於石隙”이라고 하였다.

22) “松沙一畔 石峰峯起 欹若蟄龍露角 諺傳 … 新羅時 永郎·南郎·述郎·安郎四仙 遊憩于此 或曰 四仙初不知絶勝 和睡越過.”(제9책, 『平海郡誌』, 『樓亭』, 『越松亭』,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앞의 책, 357면).

學屠龍.”라 하였으며, 李穀의 <次越松亭詩韻>(『稼亭集』 권20)에서는 “옛 자취 찾아 가을바람에 말머리를 동쪽으로 돌려서, 울창하게 그늘진 정자 소나무를 기쁘게 바라본다. 몇 년이나 신선 땅 찾으려 하여 마음 졸였던가? 도를 물으려고 친 리의 양식을 미리 쥘었다네(訪古秋風馬首東 喜看鬱鬱蔭亭松 幾年心爲尋真切 千里糧因問道春) (…).”라 했다. 李達衷(?~1385)의 <次李稼亭穀平海越松亭韻>(『霽亭集』 권1 「補遺」)에서는 “(…) 선인의 자취는 이미 묵어서 초목과 같지만, 웅장한 모습은 속되지 않아 槐龍을 낮추게 했네(僊迹已陳同卉木 雄姿不俗陋槐龍).”라 했고, 宋因(고려 말)의 <次平海越松亭韻>(『東文選』 권16)에는 “땅이 봉래산·방장산과 닿았는데, 월송의 신선은 간 지 몇 해나 되었나?(地接蓬萊方丈山 越松仙去幾炎寒) (…).”라 했으며, 李行(1352~1432)의 <平海越松亭>(『騎牛集』 권1)에서는 “(…) 읍기를 그치고 정자 가운데 취해 넘어져, 丹丘의 신선과 꿈에서 서로 만난다(吟罷亭中仍醉倒 丹丘仙侶夢相逢).”라고 하였다. 또 徐居正의 <平海八詠>(『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평해군, 題詠, ‘월송정’)에서는 “(…) 객이 일 년마다 와서 통소를 부니, 풍류는 모두 신선 무리이네(客來一稔吹洞簫 風流盡是神仙曹) (…).”라고 했으며, 成俔의 <平海八詠>(『허백당시집』 권9)에서도 “(…) 때로 들리노니, 신선이 통소를 불고 안개치마 필렁필렁 나부껴 옥괘 울리는 소리가(時間羽人吹洞簫 霞帔翩翩鳴玉佩)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산해의 앞에 든 월송정기에서도 ‘때로 笙簧과 학의 소리(곧 신선이 학을 타고 생황을 부는 소리) 같은 것이 은은히 공중으로부터 내려오기도 한다.’고 했고, 한시 <越松亭>(『아계유고』 권1)에서도 “(…) 속된 이들이 티끌 자취 남기지 못하게 하라. 응당 仙翁이 학을 타고 음이 있으리니(莫教俗子留塵躅 應有仙翁跨鶴來).”라고 하였다.²³⁾

이렇듯이 월송정 부근은 신라사선이 놀고 쉬었다는 전승이 있는 데다, 울창한 숲이 바람에 부딪쳐 나는 소리가 음악소리와 비슷하며 그 위로 신선이 탄다는 학과 혼동되기 쉬운 황새²⁴⁾가 날아든다는 등의 특성들로 인

23) 이 밖에, 沈彦光(1487~?)의 <次平海八詠>(『漁村集』 권4)에서는 “... 人傳此地見仙曹 荷衣蕙帶兼蘭佩.”라 했고, 黃俊良(1517~1563)의 <越松亭>(『錦溪集』 外集 권6) 제1수에서는 “... 吹簫仙子來中夜 散履遊人至下春 月碎枝梢驚白鶴 風翻鱗甲起蒼龍 ...”이라 하였다.

24) 鶴은 두루미(Red-Crowned Crane)인데, 시베리아 우수리지방과 중국 북동부 등지에서 번

해, 신선(특히 사선)이 학을 타고 찾아와서 노니는 곳으로 상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망양정 일대는 신라사선의 행적에 관한 전승이 없는 데다, 학(실은 황새)이 찾아오기에 적합한 소나무나 솔숲도 없고 그 절벽과 부근 바위들에 부딪치는 파도의 소리와 형세가 요란하며 야단스러운 점 등으로 인해 신선이 찾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여겨져서인지, 그곳에서 지어졌거나 그곳을 제재로 한 여러 한시 작품들에서 신선과 관련된 내용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²⁵⁾

셋째, 작자가 강원도 관찰사로서 도내 지역들을 순력하면서 평해군을 빠뜨렸을 리가 없는데(망양정도 평해군 관내에 위치함), 그 관아에 들르고서도 월송정을 찾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하겠다. 월송정 부근은 신라사선의 동해안쪽 행적이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기에 그의 신선(사선) 찾기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던 데다, ‘관동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명승으로서 평해군 관아에서 6, 7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자의 여정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가 어려

식하며, 겨울에는 중국 남동부와 한국 비무장지대 등지에서 지내는데, 한국에서는 겨울철새로서 10월 하순부터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찾아와 겨울을 난 뒤 봄에 돌아간다(일본 홋카이도에서 번식하는 두루미는 텃새임). 서식장소는 논밭·해안이나 갯벌이고, 주로 가족단위로 생활하며 겨울에는 큰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잠은 얇은 호수나 강의 중앙에서 잔다. 모두 목과 다리가 길고 모습이 비슷하며 물가에 살기 때문에, 최근까지 텃새였던 황새(鶴; Oriental White Stork)와 자주 혼동되는데, 두루미의 머리꼭대기가 붉다는 특징이 외형상의 주요 차이점이다. 두루미는 개방된 습지나 초원 또는 농경지에서 서식하며 땅위에 짙이나 마른 갈대를 높이 쌓아올려 둥지를 짓는 데 비해, 황새는 나무에 앉기 좋아하며 둥지도 나무위에 짓는다(우리나라의 ‘松鶴圖’들에 나오는 학은 소나무 위에 앉은 황새를 두루미로 혼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두루미는 울음소리가 몇 km에 울려 퍼지지만, 황새는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고 큰 부리를 맞부딪쳐서 소리를 낸다. 『Naver 자연도감』의 「두루미」(<http://animalsearch.naver.com/dbplus.naver?pkgid=200911161&query=%EB%91%90%EB%A3%A8%EB%AF%B8&id=0000004117c>) 참조.

25)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 때 적지 않은 한시 작품들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의 글들이 적지 않게 散佚된 채 불완전하게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松江集』에 월송정에 대한 글은 없고 망양정에 대한 한시 <望洋亭> 1수가 있다(原集 권1).

“놀란 물결이 돌에 부딪쳐 성난 우레 드날리고, 남은 거품이 사람에게 불어 뺨이 떨리누나. 玉山을 깎아내려 조각조각 날리고, 銀기둥을 깎아내어 층층이 떨어지네. 비린내가 바닷비에 전하니 魚龍이 싸우고, 광채가 扶桑을 쏘자 日月이 오르네. 관동의 일천리를 다 다니고, 망양정 위에 홀로 와서 올랐노라(驚濤擊石怒雷騰 餘沫吹人骨戰兢 剗却玉山飛片片 折來銀柱落層層 腥傳海雨魚龍鬪 光射扶桑日月升 行盡關東一千里 望洋亭上獨來登.)”

운 것이다.

그렇다면 雨天이나 급환 등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작품 결말부에서 ‘松根을 베어 누워 풋잡에 들어 꿈속에서 사선을 만나 적선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표현 자체가 암시하기도 하는 데다, 그러한 행위와 정황이 개연성을 지니며 유사한 사례들도 적지 않은 월송정 부근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관동별곡>의 작중 종착지는 ‘월송정 부근’일 가능성이 높고, 작자가 실제로 작품 속에 망양정을 떠나는 것으로 설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자의 意中에 있던 실질적인 종착지는 월송정 부근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월송정 부근에 실제로 들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그 경우에도 망양정에서 꿈이나 상상을 통해 假想으로 월송정 부근으로 이동하는 것임), 작자는 그의 의중의 실질적인 종착지인 월송정 부근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본디 ‘上界의 眞仙’이었다가 작은 잘못으로 인간에 귀양 온 ‘謫仙’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그의 신선(사선) 찾기 등을 완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에 작품 결말부의 내용은 월송정 부근에서의 체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종착지 ‘월송정 부근’과 결말부의 의의

1) 종착지 ‘월송정 부근’의 의의

작자는 금강산에 들어서 자신이 임포(西湖處士)·소식(‘蘇仙’)·이백(‘李謫仙’)과 마찬가지로 사람 곧 선인이라는 자의식을 은밀히 도출하여 부상시켰다. 그리고 동해안쪽의 여정들에서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신선이 된 옛 선인을 만나서 자아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라사선의 옛 행적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삼척에 들른 뒤에는, 신선 찾기의 다음 행로로서 천상의 신선

이 된 張騫을 만나기 위해 仙槎를 타고 은하수로 향할 것인지 또는 계속 사선을 만나고자 하여 앞 여정에서 빠뜨린 사선 유적지 丹穴로 찾아가 머물 것인지를 갈등을 보였고, 망양정에서는 ‘仙山 東海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英雄(장건)이나 사선을 찾아가서 옛 기별을 묻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신선 찾기-만나기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갈등과 회의는 곧 신선 찾기-만나기에서의 위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여 ‘신선(사선) 찾기-만나기’를 성공적으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사선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터이다. 그런데 사선은 망양정 일대와는 무관하고, 월송정 부근에서 노닐었다는 등의 전승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신선(사선) 찾기-만나기 과정에서의 위기는 사선이 노닐었던 월송정 부근에서 사선과 만남으로써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선은 오래 전에 신선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갔기에,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존재다. 이에 이들을 만나려면 잠-꿈이 필요하게 된다. 일찍이 사선이 노닐었던 월송정 부근은 울창한 숲이 있어서 풋잡을 자기에 불편함이 없는 데다 신선이 탄다는 학(실은 황새)이 날아드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신선(사선) 찾기-만나기 과정에서의 위기는 작자가 월송정 부근 숲의 지면에 노출된 솔뿌리를 베고 누워 잠들고 그 꿈속에서 학을 타고 찾아오는 신선(사선)을 만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하겠다(또한 월송정은 ‘月松亭’이라고도 하여, 끝부분에 나타나는 ‘明月’이 비치는 정황과 잘 어울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월송정 부근은 신선(사선) 찾기-만나기 과정에서의 위기를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하여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공간적 배경인 작중 종착지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작자는 이곳에서의 잠-꿈을 통해 하늘(九空)에서 학을 타고 찾아내려온 신선(사선)의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서 자신이 ‘본디 上界의 眞仙이었다가 황정경 한 글자를 잘못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온 사람’ 곧 ‘謫仙’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한편 월송정과 그 부근은 시인 묵객들이 동해의 섬 鬱陵島(월송정 부근에서 東北東쪽으로 약 145km 떨어진)를 아스라이 바라보거나 또는 그곳에

가는 것을 꿈꾸던 곳이기도 하다.²⁶⁾

울릉도는 于山國이 512년에 신라의 阿瑟羅 軍主 異斯夫에게 정벌된 뒤로 于陵島라 했으며, 고려시대 이래 芋陵島·羽陵島·蔚陵島·武陵島·鬱陵島 등으로 불렸다(강원도에 속함). 1403년(조선 태종 3)에 倭寇의 침략을 경계하여 거주민들을 육지로 나오게 한 뒤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되어 있었다.²⁷⁾

그런데 여러 사람들은 이 울릉도를 중국 전설에서 신선들이 산다고 한 바다 가운데 산으로 여기곤 했다.

『拾遺記』(10세기에 王嘉가 중국의 전설을 모은 志怪書)에 이르기를, “扶桑(동녘)으로 5만 리를 가면 磅磳山이 있는데, 그 위에 백 아름 되는 복숭아나무가 있어 만년에 한 번씩 열매가 연다. 鬱水가 방당산 동쪽에 있는데, 천 常(1常은 16尺)이나 되는 푸른 연뿌리가 난다.” 하였다. (… 『습유기』에 이르기를, “봉래산은 높이가 2만 리인데, (…) 그 동쪽에는 鬱夷國이 있다.”고 하였다.²⁸⁾

李睟光(1563~1628)의 견해에 의하면, ‘磅磳’은 ‘方丈’과 소리가 서로 가까우며 ‘鬱夷’와 鬱陵島도 소리가 서로 가깝고 울릉 또한 옛 나라 이름이었으므로, 방당산(방장산)의 동쪽에 있다는 ‘鬱水’와 봉래산 동쪽에 있다는 ‘鬱夷國’은 곧 울릉도를 말한 바일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산해는 蔚陵島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6) 뒤에 들 이산해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金時習(1435~1493)도 동해안을 유람하면서 “遊越松 望鬱陵于山.”이라고 했으며(許穆, 『眉叟記言』 권11 原集 중편, 『清士列傳』), 吳道一(1645~1708)도 울진현령을 지낼 때 지은 한시 <越松亭次任大年韻>(『西坡集』 권3)에서 “縱目乾坤一蕩胸 扶桑瑞色鬱陵通 清都咫尺三山近 碧海東南大地窮 ….”라 하였다.

2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蔚珍縣, 「산천」, 「于山島 鬱陵島」;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鬱陵島事實辨證說」 등 참조.

이후 1882년(고종 19)에 400년 넘게 시행되던 空地정책을 철폐하여, 주민을 이주시키고 島長(島監)을 두었다. ‘울릉군 홈페이지’(http://www.ulleung.go.kr/)의 ‘울릉군 소개’, ‘연혁’ 참조.

28) 『拾遺記』 扶桑五萬里 有磅磳山 上有桃樹百圍 萬歲一實 鬱水在磅磳山東 生碧藕長千常 … 拾遺記曰 蓬萊山高二萬里 … 東有鬱夷國云.”(李睟光, 『芝峯類說』 권2, 地理部, 「山」).

29) 같은 글에서의 “余意磅磳與方丈 音相近 … 所謂鬱水 恐指鬱陵島而言 … 鬱夷與鬱陵島 音相近 鬱陵亦古國名 王維送日本晁監序曰 扶桑若齊 鬱島如萍此也.” 참조.

아, 신선에 관한 설이 오래되었도다. 이른바 봉래·방장·영주가 과연 참으로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곤륜의 玄圃를 본 사람은 또한 누구인가? 만약 신선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이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섬(울릉도)이 봉래나 곤륜의 하나로서 異人和 仙客이 있는 곳일지 어찌 알겠는가? 한 폭의 배뚝을 바람 따라 높이 걸면 불과 하루 밤낮 만에 몸을 그 사이에 이르게 할 수 있어서 세상의 여러 의혹들을 이에 좇아서 깨뜨릴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부질없이 목을 빼내어 동쪽을 바라보면서 헛되이 夢想과 吟詠 속에 들게 한다. 슬프구나!”³⁰⁾

이처럼 월송정과 그 부근에서 아스라이 바라보이는 울릉도를 중국 전설에서 신선들이 산다고 한 바다 가운데 산(三神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은 월송정 부근에서 울릉도의 신선을 그리워하거나 꿈꾸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이산해는 『월송정기』에서 “소나무에 기대어 한가롭게 즐면서 정신이 울릉의 밖에서 노닐었다.”고 하였으며, 또 월송정 부근에서 지은 한 시 <蔚陵島>(『아계유고』 권1, 箕城錄)의 제1수에서는 “한 무제와 秦始皇이 신선을 찾았을 때, 龍舟가 오하려 울릉의 바람에 막혔었지. 찬 물결이 오랜 세월 공연히 나고 들고 하는 동안, 밝은 달 아래 蟠桃는 몇 번이나 붉었을까?(漢武秦皇訪異翁 龍舟猶阻蔚陵風 滄波萬古空朝暮 明月蟠桃幾度紅)”라고 하였고, 제3수에서는 “나른하여 술뿌리 의지해서 낮꿈 꾸는 동안, 찬바람 불어서 학이 하늘 높이 오르네. 훨훨 날아서 푸른 바다 밖 지나니, 三神山과 扶桑이 눈 깜짝할 사이네(倦倚松根午夢間 冷風吹上鶴天寒 翻躍飛過滄溟外 三島扶桑瞥眼間).”라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월송정 부근은 신라사선이 놀았던 곳이며 그들의 동해안쪽 행적이 끝난 곳으로서, 그 술숲에 신선이 학을 타고 찾아오기도 한다고 상상되고 있었던 데다, 그곳에서 아스라이 바라보이는 울릉도를 신선들이 산다

30) “噫 神仙之說 尙矣 所謂蓬萊方丈瀛洲 未知果真有 而崑崙玄圃 見之者抑誰歟 如使神仙不有 則已 有之則是島也安知蓬萊崑崙之一 而異人仙客之所在耶 一幅布帆 便風高掛 則不過一晝夜之頃 可以致身其間 而世之群疑衆惑 從此可破 既不得此 則令人徒費引領東望 而空入於夢想吟詠之中 悲夫.”(『아계유고』 권3).

는 바다 가운데 산이라고 여겨서(신선이 된 신라사선이 갔다는 곳도 울릉도를 말한 것일 수 있음) 여러 시인 묵객들이 월송정과 그 부근에서 몽상에 들고 시편을 지어 읊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관동별곡>에서 작자가 그곳에 실제로 들렀든 또는 망양정에서 꿈이나 상상을 통해 가상으로 들르는 것으로 했든 간에, 월송정 부근을 종착지로 삼은 것은 그의 신선의 식 실현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설정이었다고 하겠다.

2) 결말부의 의의

일반적으로 문학작품들은 그 자체로써 완성됨을 지향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서사문학 등처럼 사건이나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경우에는 작품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종결되고 갈등이 해결되기를 꾀한다.

<관동별곡>도 '신선의식 실현'을 주제로 하여 '도입부→발단부→발전부→위기부→결말부'로 구성된 가운데 '신선(사선) 찾기-만나기'라는 일종의 사건을 가지며 그 전개과정에서 갈등·회의 등의 위기를 보이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신선(사선) 찾기-만나기' 과정에서의 위기가 해결되며 사건이 종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위기의 해결과 사건의 종결은 결말부에서 사선과의 만남 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작자는 이러한 결말이 자연스럽게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선들이 산다는 바다 가운데 산으로 여겨졌고 신선이 된 사선이 간 곳일 수도 있는 울릉도를 아스라이 바라보거나 꿈꿀 수 있으며 일찍이 사선이 노닐었던 곳인 월송정 부근을 작중 종착지로 삼아서, 그곳 숲속에서의 잠-꿈 속에서 사선의 한 사람을 만나고, 그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본디 '上界의 眞仙'이었다가 작은 잘못으로 인간에 내려온 '謫仙'임을 밝히게 하였다. 이로써 작자는 신선(사선) 찾기-만나기 과정에서의 위기를 해결하고 자아정체성을 확인하여 사건을 완결한 것이다.

또한 결말부의 끝부분(종결부)에서는 이러한 위기 해결과 사건 종결을 넘어서서, 더욱 진전된 새로운 정보(시상)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작자가 자신의 정체성이 '謫仙'임을 깨달은 이후에 그에게 '신선의 경지'가 펼쳐지

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144 나도 즘을 찌여 바다홀 구벼보니

145 기핍를 모르거니 7인들 엇디 알리

146 명명월이 千山萬落에 빠짐없이 아니 비천 더 업다

‘明月이 千山萬落에 빠짐없이 비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는 매우 높은 곳이므로, 이는 작자가 羽化登仙하여 하늘 높이 날면서 下界를 굽어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이를 포함하여 제144~146행에서의 표현과 내용은 중국 신선사상의 주요 기반이 된 『莊子』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鵬’, ‘大知’ 등)의 경지에 관한 표현 및 내용과 상통하여,³¹⁾ 신선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²⁾

이러한 면에서, 이 작품의 결말부는 그 앞에 나타난 위기를 해결하고 직선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끝부분(종결부)에서 신선으로서의 본래 정체성이 상당 정도 회복되는 새로운 상황까지도 제시하는 진전을 보이는데, 관직과 정치에 대한 희망·의지를 지닌 관찰사의 처지에서는 이로써 그의 신선의식 실현이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최고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그 결말부는 더 이상의 전개가 없음(불필요함)을 알려주고 정당화하며, 모든 선행 요소들이 포괄적으로 조망될 수 있고 그것들의 관계

31) ‘바다를 굽어보니 그 깊이와 가를 알 수 없다’는 표현과 뜻은 『莊子』 「逍遙遊」(內篇 제1)에서의 “하늘이 푸르른 것은 본래의 빛깔인가? 멀어서 끝닿는 바가 없어서인가? (鵬새가) 아래를 굽어보아도 또한 이와 같을 따름이다(天之蒼蒼 其正色邪 其遠而無所至極邪 其視下也 亦若是則已矣).”의 내용과 거의 마찬가지로, 이는 「秋水」(外篇 제17)에서의 “큰 지혜를 가진 이는 ... 사물의 양이 무궁함을 안다(大知 ... 知量無窮).” 등에서의 경지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明月이 千山萬落에 빠짐없이 두루 비친다’의 뜻은 「齊物論」(內편 제2)의 ‘만물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一體이므로, 차별 없이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따듯이 감싸야 한다’는 사상과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김병국, 앞의 글, 56면에서는 이 작품에서 ‘餘韻과 餘白의 멋’을 강조하여, “깊이를 모르거니 7인들 어찌 알리”의 語勢가 제법 토의적 사변적 귀결로 몰아갈 듯하더니, 느닷없이 끝행에서 마땅히 뒤따라야 할 논리적 귀결이 아닌, 심상의 자의적 환기에 놓이듬으로써, 향수자의 심리적 여운과 사변적 여백에 방치해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종결부의 의미를 필자와는 다르게 파악한 데 따른 견해라고 할 것이다.

가 의미 있는 구도의 부분으로 파악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독자의 체험에 궁극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부여하며 결말·해결·안정의 효과를 성취하는 시적 종결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³³⁾

한편 이 작품의 결말부는 그 앞과는 달리 여러 사항들을 긴밀히 관련시키는 문장 구성 속에서 여러 절묘한 표현들을 통해 신선의식 실현의 결과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구체화하여 인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 첫머리의 “松송根근을 빼여 누어 풋즙을 얼핏 드니”(제129행)는 (a) 머리가 松根을 넘어감(越)으로써 ‘越松’을 나타내게 되어, 작자가 월송정 부근의 숲에서 누워 잠자다를 것을 절묘하게 표현한 바일 것이다. 그런데 이는 표현의 묘미를 추구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b) 그 월송정 부근에서의 ‘잠-꿈’의 상황 설정을 통하여 그곳과 관련되는 신라사선을 그 꿈속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이 수 있게 하며, (c) ‘풋잠(깊이 들지 못한 잠)’이라고 함으로써 작자가 그 잠-꿈에서 곧 깨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표현을 기반으로 해서, (b)의 상황에서 작자는 사선의 現夢을 통해 그동안의 신선(사선) 찾기의 목적인 사선과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달성하였고(이로써 위기부에서의 갈등·회의의 주된 요인이 시상의 연쇄를 통해 긴밀성을 갖추면서 해결됨), 또 그의 말을 통해 적선으로서의 자아정체성 확인(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³⁴⁾ 그리고 (c)에 따른 결과로서 작자는 자아정체성 확인(깨달음)과 깨어남(覺夢) 이후에 자신에게 펼쳐진 새로운 세계 곧 신선의 경지(신선으로서의 본래 정체성 회복)를 구상화하였다.

33) Barbara Hermstein Smith, *Poetic Closur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36; B. H. Smith, “Closure,” Alex Preminger and T. V. F. Brogan ed.,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221 참조.

또한 끝 행(제146행)의 리듬구조(3·5·5·2')가 그 앞 시행들에서의 리듬구조(3·4·3·4') 등을 변용한 것(terminal modification)도 조선시대의 관습적인 시형들인 가사와 시조 등의 시형에서 많이 쓰이던 것으로서(3·5·4·3' 등이 많음), 고조된 시적 긴장을 해소해 주고 더 이상의 전개가 없음을 알려주는 등의 종결의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B. H. Smith, *Poetic Closure*, p.50; 성호경, 『朝鮮前期詩歌論』, 새문사, 1988, 119면, 131면 참조).

34) 그리고 “이 술 가져다가 四스海회에 고로 논화/ 億억萬만蒼生生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의/ 그제야 고터 만나 또 혼 잔 ㅎ갓고야”(제139~141행)를 통해서, 작자의 목민관으로서의 소임 완수를 넘어서는 經國濟民 곧 국가경영에 대한 희망과, 그 이후에 九空에서 살고 있는 사선과 다시 만나는 것 곧 자신도 ‘上界의 眞仙’으로 돌아감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작자가 마침내 우화등선하여 신선의 경지를 얻게 되었다는 점은 “구버보니”와 하늘 높이 날아야 확인할 수 있는 정황만을 제시하는 고도의 축약적·암시적인 방식으로써 표현되었다.

그리고 결말부에서의 ‘鶴’(제142행)·‘玉簫소리’(제143행)·‘잠을 깬’(제144행)은 발단부에서 신선의식을 도출하기 시작하는 부분인 “金剛강臺디민 우륙층의 仙鶴학이 샷기 치니/ 春춘風풍 玉玉笛덕聲聲의 첫음을 씨뚫던디”(제23·24행)에서의 ‘仙鶴’·‘玉笛聲’·‘첫잠을 깬’과 같거나 비슷한 말들로써 대응되고 있다. 이 작품의 신선의식 관련 부분만으로 보면, 首尾相關法으로써 발단부에서 암시되었던 주제의 핵심인 ‘신선의식의 실현’을 결말부에서 묘미 있게 강조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³⁵⁾

또한 그 앞까지는 묘사와 독백적 話法 위주로 서술이 이루어지다가 결말부에서는 중간 중간에 “그더를 내 모르랴 上上界계예 眞眞仙仙이라/ 黃黃庭庭經經 一일字字를 엮디 그릇 닐거두고/ 人人間간의 내려와서 우리를 쫓오논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혼 잔 머거 보오”(제131~134행)와 “이 술 가져다가 四스海海히에 고로 논화/ 億億萬萬 蒼蒼生生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의/ 그제야 고터 맞나 또 혼 잔 흐갓고야”(제139~141행)라는 사선과 작자 사이의 대화가 직접 인용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말부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지닌다.

대화의 사용은 극적인 정신의 발현인데, 극적인 정신은 어떤 한 방향(이념)을 향해 개별적인 사물들을 질서화하는 목표지향적 전진을 통해 강한 긴장 등의 극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한다.³⁶⁾ 그리고 그 대화를 실제 발화의 형태로 나타내는 직접 인용은 현장감·실감을 통해 가상의 일조차도 실제의 일인 듯이 여겨질 수 있게 하는 박진감과 신뢰감을 준다.

시에서의 대화 사용은 작품의 주제를 객관화하고 고조된 극적 긴장을 낳는다고 하며,³⁷⁾ 독백적인 시 안에 대화적 특성과 직접 인용의 극적 화법의

35)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성호경, 「〈關東別曲〉의 형상화와 鄭澈의 신선의식」, 99~101면을 볼 것.

36) Emil Staiger, *Grundbegriffe der Poetik*, 李裕榮·吳鉉一 역, 『詩學의 根本概念』(삼중당, 1978), 224~225면, 246~247면 참조.

37) A. Preminger and T. V. F. Brogan ed., op. cit., p.291.

활용 등 다른 화법을 삽입하는 방식은 시의 單聲性을 극복하고 시인이 지향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그 직접 인용으로 쓰인 시구는 대개 시의 궁극적인 의미 혹은 주제와 밀접한 것이라고 한다.³⁸⁾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이 이 작품의 결말부에서 쓰인 것은 작자의 자아정체성이 적선임을 확인함과 작자의 궁극적인 지향 목표인 ‘眞仙으로서의 본래 정체성을 회복함’을 극적 효과와 박진감·신뢰감을 유발하면서 효과적으로 추구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게 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작품의 결말부는 신라사선 등 신선과 관련이 있는 월송정 부근을 종착지로 하고 그 앞과는 다른 문장 구성과 화법을 쓰면서, 사선과의 만남을 통해 주제인 신선의식 실현을 위한 신선(사선) 찾기-만나기 과정에서의 위기를 해결하며 적선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인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더 나아가 끝부분(종결부)에서 신선으로서의 본래 정체성을 상당 정도 회복하는 새로운 상황까지도 제시하여 작자의 신선의식 실현이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최고수준에 이르게 됨으로써 더 이상의 전개가 불필요함을 알려주는 등의 시적 종결의 효과를 성취하며, 또한 그러한 주제의 최종적 국면을 절묘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동별곡>은 작자 정철이 자신을 仙人으로 여기는 신선의식의 실현이 주제의 핵심이며 그 형상화도 이를 구현함에 초점 맞추어져서, 작자가 신선을 만나서 자아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선(新羅四仙) 찾기-만나기를 구성의 중심축으로 하는데, 결말부에서 작자는 꿈속에서 사선을 만나 자신의 정체성이 ‘본디 上界의 眞仙이었다가 작은 잘못으로 인간에 내려온 謫仙’임을 확인한 뒤, 본래 정체성을 상당 정도 회복하게 된다.

38) 이은정, 『현대시학의 두 구도』(소명출판, 1999), 162면.

그 작중 종착지는 ‘望洋亭’으로 알려져 왔지만, 결말부의 표현 “松송根근을 베어 누어~”와 越松亭 부근 및 망양정 일대의 특성 그리고 신선(사선) 관련 전승 등으로 보아 ‘월송정 부근’일 가능성이 높으며, 작자의 意中에 있던 실질적인 종착지는 월송정 부근이라고 할 것이다.

월송정 부근은 신라사선이 놀았던 곳이며 그들의 동해안쪽 행적이 끝난 곳으로서, 그 숲속에 신선이 학을 타고 찾아오기도 한다고 상상되고 있었던 데다, 그곳에서 아스라이 바라보이는 울릉도가 신선들이 산다는(신선이 된 사선이 간 곳일 수도 있는) 바다 가운데 섬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작자의 ‘신선(사선) 찾기-만나기’ 과정에서의 위기를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하여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한 공간적 배경인 작중 종착지로서 최적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작자가 그곳에 실제로 들렀든 또는 망양정에서 꿈이나 상상을 통해 가상으로 들르는 것으로 했든 간에, 월송정 부근을 작중 종착지로 삼은 것은 그의 신선의식 실현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설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결말부는 이러한 월송정 부근을 종착지로 하고 그 앞과는 다른 문장구성과 화법을 쓰면서, 사선과의 만남을 통해 주제인 신선의식 실현을 위한 신선(사선) 찾기-만나기 과정에서의 위기를 해결하며 적선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인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끝부분(종결부)에서 신선으로서의 본래 정체성을 상당 정도 회복하는 새로운 상황까지도 제시하여 작자의 신선의식 실현이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최고수준에 이룸으로써 더 이상의 전개가 불필요함을 알려주는 등의 시적 종결의 효과를 성취하며, 또한 그러한 주제의 최종적 국면을 절묘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다.

<관동별곡>은 옛날부터 가사의 명작으로 손꼽혀 왔으며, 대한민국의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년)부터 현행 제7차 교육과정기(1999년~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느 작품들과는 달리 한 차례도 빠짐없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왔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게 되는 ‘국민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어떤 작품들보다 더 긴요하다고 하겠다.

작자 정철은 이 작품에서 그가 경험한 순력여행의 현장들에 대한 감동적이며 생동감 있는 정서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적지 않은 독서(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와 견문을 통해 얻게 된 강원도 여러 지역들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더불어李白·蘇軾 등 중국 대시인들의 작품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잘 활용하면서, 특유의 뛰어난 시적 창조력을 발휘하여 그의 내면세계를 훌륭하게 형상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이 작품의 주제와 그 구현으로서의 형상화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하여, 그 예술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물론이고, 그 시상에 대한 바른 이해조차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작품의 시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이 작품 창작에 기울인 작자의 노력을 따라가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 표현들의 의미와 특성을 치밀하게 살펴서 밝혀내어야 할 터인데, 그 관건은 결말부에 대한 바르고 깊은 이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 작중 종착지의 실상과 이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결말부의 특성과 의의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글과 그 앞에 발표된 글을 통해서 그 一端을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이 글들에서 밝혀낸 바는 불충분하나마 <관동별곡>의 시세계에 대한 바르고 깊은 이해에 얼마간 이바지하고, 정철 문학의 특질 및 가치 구명과 가사 결말부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고찰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그 관련되는 연구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鄭 澈, 『松江先生文集』(原集·續集·別集), 영인본: 『標點影印 韓國文集叢刊 46』, 민족문화추진회, 1989, 125~417면.
- _____ 지, 辛鎬烈·鄭雲翰 역, 『國譯 松江集 上·下』, 삼안출판사, 1974.
- 安 軸, 『謹齋集』, 영인본: 『標點影印 韓國文集叢刊 2』, 민족문화추진회, 1990, 443~494면.
- 李 穀, 『稼亭集』, 영인본: 『標點影印 韓國文集叢刊 3』, 민족문화추진회, 1990, 89~242면.
- 盧思愼·姜希孟·成任·梁誠之·徐居正·李荇·洪彦弼 등, 『新增東國輿地勝覽』, 영인본: 명문당, 1985.
- 李山海, 『鵝溪遺稿』, 영인본: 『標點影印 韓國文集叢刊 47』, 민족문화추진회, 1989, 443~596면.
- 李晬光 지, 南晩星 역, 『芝峯類說 上·下』, 을유문화사, 1975.
- 『關東誌』, 영인본: 韓國學文獻研究所 편, 『江原道邑誌 ①·②』, 아세아문화사, 1986.
- 莊 周 지, 金東成 역, 『莊子』, 을유문화사, 1969.
- 김병국, 「가면 혹은 진실: 송강가사 <관동별곡> 평설」, 김병국,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32~57면.
- 金思燁, 『鄭松江研究』, 계몽사, 1950.
- 성호경, 「<關東別曲>의 형상화와 鄭澈의 신선의식」,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71~106면.
- 이은정, 『현대시학의 두 구도』, 소명출판, 1999.
- Preminger, Alex and Brogan, T. V. F. ed.,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Smith, Barbara Herrnstein, *Poetic Closure: A Study of How Poems E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Staiger, Emil, *Grundbegriffe der Poetik*, 李裕榮·吳鉉一 역, 『詩學의 根本概念』, 삼중당, 1978.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 .
- 『Naver 자연도감』, <http://animalsearch.naver.com/dbplus.naver?pkgid=> .

디지털을진문화대전, <http://uljin.grandculture.net/>.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외 다수.

Destination Place in *Gwandong-byeolgok*
and the Significance of Its Denouement

Seong, Ho-gyong

In *Gwandong-byeolgok*, a literary work of gasa written by Jeong Cheol, the theme is realization of the writer's self-consciousness as a hermit and the central axis of composition is pursuing and meeting four hermits of the Silla period for confirmation of his identity. In the denouement of the work, the writer confirms his identity as an exiled hermit from heaven by meeting four hermits in his dream, and recovers his original identity to certain extent.

The destination place of the writer's journey in the work would be the vicinity of Pavilion Weolsongjeong, not Pavilion Mangyangjeong, in various respects; it is the best background place for completing the writer's realization of the self-consciousness.

In the denouement of the work, the writer resolves crisis in the process of seeking-meeting hermits, concludes the event, and further goes on suggesting new station as a hermit at the terminal part. Through these, the writer completes the work and achieves closural effect. With excellent and effective expressions in the final aspect of the theme, the work leaves very strong impressions on readers.

Key words : *Gwandong-byeolgok*(關東別曲), Jeong Cheol(鄭澈), destination place, the vicinity of Pavilion Weolsongjeong(越松亭), self-consciousness as a hermit, significance, denouement.

| |
|---|
| 접수일자: 2010. 8. 30 심사기간: 2010. 8. 30~2010. 11. 20 게재결정: 2010. 11. 20 |
|---|